

할레의 후유증은 심각한 출혈과 파상풍, 쇼크가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성적인 감염과 반복되는 출혈,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둘째로 이웃들의 축하 세례는 계속됐지만 할레를 받은 소녀들의 표정은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다. 너 무나 이른 상태에서 밤세도록 마을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추야 하기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명의 상의 여성들이 이 할례의식을 치렀다. 이집트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할례 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뿌 리 깊은 할례전통은 극소수의 상류층만을 제외하고 는 철저히 고수되고 있다.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라는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수단 여성의 98%, 이집트 90%, 소말리아 99%, 에디오피아 90%, 에리트리아 90%, 시에라레온 95%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할례, 즉 포경수술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위생을 위한 것이고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욕 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녀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목 적을 지닌, 매우 위험하고 야만적인 폭력이다. 할례 의 후유증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자명하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잘라지는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육체와 정신건강 모 두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종종 나타나는 육체적 후 유증으로는 심한 출혈, 감염(특히 파상풍) 그리고 쇼 크가 있다.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헤어리서 프로그램 W를 위한 500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망

백승현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사회로부터 벗어나 정치와 무관하게 또는 절연한 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인간실존의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 일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투표하기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 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어느 정당과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서 우리 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살피고 가능하려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분리원칙에 대해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다. 기 독교 문명권 북미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개념이 확립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바로 이 원리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현 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는 18세기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종 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인정, 존중하고 있다. 그 러나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 서 구에서 확립된 전통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보다 '교 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가 더 적절한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개념이 혼 용되고 있는데,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하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종 교 또는 신앙생활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정치를 공 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개인 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종교와 교파별로 각기 다를 수 있는 예배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또는 국교를 지정해 강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조직이 국가 의 운영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원칙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교회 차원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참여해야한 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 서 기독교인 시민답게 그 신앙에 비취 현실정치 문



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투표나 여론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함축한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각 개인은 국가사회의 공극적 주권자이다. 이에 더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 민주시민은 하나님께서 국가사회에 부여하신 임명권이다. 그런 만큼 기독교인은 정치적 식견과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유권자로 참여하거나, 또는 정부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지니나 반대의견을 표출해야 할 권리와 함께 임명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나라' 즉 우리의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의 시민권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적 시민권 등 두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Christians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it.) 이 세상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국가를 만들고 존재케 한 분도 하나님이다. 비록 국가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질서 속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해 제정된 제도와 산물이긴 하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민은총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기독교인이 그의 삶에서 현실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별하고 판

단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서로 관계없는 별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즉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현실 정치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 후보자에게만 표를 던져야 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제기된다. 개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종교적 배경이나 확신이 무엇인 건에 관계없이, 그보다 먼저 어느 후보가 성경적 가르침에 합치되는 도덕적 및 정치적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고 구현할 수 있을만한지를 선별기준으로 삼아 그에—심지어 그 후보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지지를 보내야 한다.

성경은 정부공직을 맡고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 서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교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디모데전서 2:2) 위함이 그 이유이다. 바울은 또한 비단 기독교인의 권세만이 아니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종교적 배경보다 먼저 어느 후보가 성경적 가르침에 합치되는 도덕적 및 정치적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고 구현할 수 있을만한지를 선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로마서 13:1)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비게 신을 배후는 자니라" (로마서 13:4)고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인 유권자가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정책, 이슈, 자질, 능력 등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어떤 후보가 기독교인인지 때문에 그에게 표를 던지기로 결정한다면, 과연 그의 결정은 신의 양치기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장로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는데 힘을 모아 표를 던졌다. 그러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나서,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달라지거나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는지 엄밀히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선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명박 후보를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짐함적으로 지지하는 양태를 보인 게 비기독교인 유권자들 특히 불교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주고, 오히려

기독교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대통령직자, 집권, 대통령, 모든 공무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인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그저 이 땅의 나라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한복음 18:36)."



박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IL)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SU)에서 수학하였다.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괴원(삼괴중고교, 장안여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의 정회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